



농구국가대표팀 하재 감독(왼쪽 맨 앞)은 선수시절 '농구대통령'으로 통했다. 그러나 속초에서 열리고 있는 '2017 KBL 엘리트 유스 캠프'에 참가한 중고교 유망주들은 하 감독의 선수시절 활약상을 모른다. 하 감독은 이에 개의치 않고 한국농구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 선수들을 열정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사진제공 | KBL

“농구대통령? 허웅아빠로 알더라”

‘KBL 엘리트 유스캠프’서 첫 유망주 지도

하재 감독

기본기·속공 등 직접 나서서 코치
“학생들은 날 잘 몰라요” 너털웃음

미래의 프로농구선수를 꿈꾸는 유망주들이 강원도 속초에 모였다. KBL은 20일부터 속초체육관에서 ‘2017 KBL 엘리트 유스 캠프’를 열고 있다. 24일 끝나는 이번 캠프는 중등부(20~22일·40명)와 고등부(22~24일·40명)로 나뉘어 진행된다. 유망주들의 도우미로는 국가대표팀 하재(52) 감독, 김상식(49) 코치를 비롯해 김대의(52), 오성식(47·이상 전 LG 코치), 스کیل트레이너인 김현중(36·전 동부) 등 프로농구 감독, 코치, 선수 경험을 지닌 지도자들이 나섰다.

●하재 감독이 생각하는 스کیل트레이닝

하재 감독은 2005년 KCC 사령탑으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현재는 국가대표팀을 지휘하

고 있다. 유망주 지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 감독은 “프로선수들만 지도하다가 어린 선수들을 가르치려고 하니 색다르면서 재미도 있다”며 웃었다. 이어 “처음에 막막했다. 뭘부터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말했다.

하 감독의 어려움을 덜어준 이는 지난해 현역 은퇴 이후 스کیل트레이너로 활동 중인 김현중이었다. 김현중은 다양한 드리블과 스텝 등 기본기 지도를 맡았다. 스کیل트레이닝은 최근 중고교선수들 사이에서 필수 코스로 꼽힐 만큼 관심을 사고 있다. 김현중의 화려한 기술은 단숨에 선수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를 토대로 하 감독은 기본기 위주에서 2대2, 3대3 등으로 폭을 넓혀가며 유망주들을 지도했다. 속공 전개, 포스트업 위치를 잡는 수업을 할 때는 본인이 직접 코트에 서기도 했다.

하 감독은 “(김)현중이가 미국에서 스کیل트레이닝을 잘 배워서 왔더라. 나도 동영상상을 통해 본 적이 있다. 기술이 쉽지가 않더라. 내가 현역 때 배웠어도 처음에는 엄청 해맸을 것 같다. 기술을 습득하면서 난이도를 높여간다면 중고교 선수들은 물론이고, 프로선수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하 감독은 충고도 잊지 않았다. 그는 “NBA(미국프로농구) 선수들도 스کیل트레이닝을 많이 한다고 들었다. 마냥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에 매료되기 전에 그 정도 수준까지 오르기 위한 노력과 과정을 생각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농구대통령’도 학생들에게는 ‘허웅아빠?’

하재 감독은 선수시절 한국농구 역사상 최고의 테크니션으로 평가 받았다. ‘농구대통령’으로 불렸고, 어디를 가도 물라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중고교생들은 하 감독의 전성기 모습을 전혀 모른다. 하 감독의 둘째 아들인 허훈(22·연세대)도 동영상상을 통해서나 아버지의 화려한 선수시절을 봤을 정도이니, 그보다 더 어린 선수들은 더할 수밖에 없다. 하 감독은 “내가 어떤 선수였는지 알 리가 있나. 그냥 ‘허웅(24·동부), 허훈 아버지’라고 알고 있더라. 어떤 녀석은 사인을 해달라고 농구공을 가져왔는데, 부모님이 시킨 게 아닌지 모르겠다”며 특유의 너털웃음을 지었다.

속초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모비스 전주범(가운데)이 22일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동부와의 원정경기 도중 웬델 맥키네스(오른쪽)의 수비를 피해 골밑 슛을 시도하고 있다. 원주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3점슛 11개’ 모비스, 살아난 외곽포

김효범 3개·전준범 2개 등 팀 득점 활기
4위 동부에 82-78 승…0.5게임차 추격



모비스는 최근 2연패 중이다. 특급 신인 이종현의 합류로 높이에서 우위를 확보했지만, 최근 2경기 공격력은 답답하기만 했다. 모비스는 단신 외국인선수 2명을 활용하는데, 모두 공격에선 확실한 장기를 지닌 스타일이 아니다. 국내선수들의 외곽포 지원이 이뤄지는 날은 그나마 득점이 원활한데, 그렇지 못한 날은 공격에서 애를 먹곤 한다.

모비스 유재학 감독은 22일 원주종합체육관에서 벌어진 ‘2016~2017 KCC 프로농구’ 5라운드 동부와의 원정경기를 앞두고 “최근 2연패 때는 공격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맞춰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진 않는다.

미들 지역 등 외곽에서 조금씩 풀어주면 나아질 수 있는 문제다. 잔여경기를 치르면서 조금씩 좋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 감독의 기대대로 이날은 초반부터 3점슛 등 외곽슛이 터져 공격에 숨통이 트였다. 1·2쿼터에는 김효범(11점)이 3점슛 3개로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그 덕에 큰 점수차로 뒤지지 않은 모비스는 30-37로 맞이한 3쿼터부터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했다. 전준범(10점)의 3점슛 2개로 56-53, 역전에 성공했다. 승부처가 된 4쿼터에는 팀의 주축 양동근(15점)과 함지훈(11점)이 나섰다. 둘은 3점슛 5개를 합작했다.

3점슛 20개를 던져 11개를 성공시키며 82-78로 이긴 5위 모비스(22승20패)는 4위 동부(23승20패)를 0.5경기차로 압박했다. 인천에선 전자랜드가 LG를 82-70으로 제압했다. 전자랜드(20승23패)는 LG(19승23패)에 빼앗겼던 6위 자리를 되찾았다. 원주 |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삼성생명, 끝내준 3쿼터

토마스 13점 몰아치기…KB 12점차 격파



2위를 확정된 삼성생명이 3위 KB스타즈의 플레이오프(PO) 진출을 향한 집념에 찬 물을 끼얹었다. PO 진출의 마지막 도전인 3위 경쟁도 더욱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삼성생명은 22일 용인체육관에서 열린 ‘삼성생명 2016~2017 여자프로농구’ 7라운드 KB스타즈와의 홈경기에서 엘리사 토마스의 21점·16리바운드 맹활약에 힘입어 87-55로 이겼다. 삼성생명은 2연승으로 시즌 18승째(14패)를 챙긴 반면 갈 길 바쁜 KB스타즈(13승19패)는 연승행진을 3경기에서 멈추며 4위 KDB생명(12승19패)에 0.5게임차로 바짝 쫓기게 됐다.

전반은 1쿼터를 지배한 KB스타즈의 페이스, KB스타즈는 전반에만 15점·6리바운드를 올린

박지수를 앞세워 31-26, 5점차로 앞서며 순조롭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특히 23-14로 리드한 1쿼터에는 박지수 홀로 13점을 책임졌다. 삼성생명도 전반 14점을 합작한 최희진(8점)·토마스(6점)의 분전 덕분에 1쿼터의 9점차 열세를 만회할 수 있었다.

3쿼터는 삼성생명의 일방적 우세. 경기 시작부터 내내 플레가던 삼성생명은 3쿼터 종료 4분43초 전 토마스의 자유루 2득점으로 35-35 동점을 만든 데 이어 고아라의 골밑 득점으로 37-35, 역전에 성공했다. 토마스가 13점을 몰아치는 등 공격이 호조를 보여 3쿼터를 45-38, 7점차로 앞선 채 마칠 수 있었다. 3쿼터에 삼성생명은 KB스타즈의 득점은 7점으로 묶는 한편 공격에선 19점을 뽑아 승기를 잡았다.

4쿼터 들어 양 팀의 공방은 가열되는 듯했지만, 삼성생명이 흔들림 없이 점수차를 벌려가며 KB스타즈의 추격의지를 무력화시켰다. KB스타즈의 기동 박지수의 24점·10리바운드도 빛이 바랬다. 정지욱 기자

격투기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첫 여성파이터 리그…종합격투기, 새로운 도전은 계속된다

3월11일 ‘ROAD FC 037 XX’ 개막

태권도·복싱 등 챔프 출신 파이터 출동
‘여자 권아술’ 강진희, 에미코와 2차전
여고생 이예지, 사토코와 리벤지 대결



종합격투기의 새로운 물결은 쉬지 않는다.

‘New Wave MMA’ ROAD FC가 2017년 상반기 일정을 공개했다. 2월1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100만 달러 토너먼트(ROAD TO A-SOL) 인턴내셔널 A조 예선 7경기를 포함한 12개의 매치를 성사시키며 종합격투기 팬에게 2017시즌 출발을 알렸던 ROAD FC는 3~6월에 매달 벌어지는 스케줄을 확정했다.

3월11일 서울 흥동 그랜드 힐튼 서울에서 최초의 여성부리그 ROAD FC 037 XX(더블엑스)가 화려한 막을 올리고 4월15일에는 장충체육관에서 100만 달러 토너먼트 인턴내셔널 B조 예선과 밴텀급 챔피언결정전이 벌어진다. 5월20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미들급 타이틀전 차정환 VS 최



3월11일 서울 흥동 그랜드 힐튼 서울에서 벌어지는 최초의 여성부리그 ROAD FC 037 XX는 복싱, 태권도, 무에타이, 유도, 우슈 등 각종 격투기 종목 챔피언 출신 여성 파이터들이 출전해 눈길을 끈다. (사진 왼쪽부터 복싱 라이카 에미코, 태권도 김해인, 무에타이 심유리, 유도 시나시 사토코, 우슈 임소희) 사진제공 | ROAD FC

영의 리벤지 매치와 무제한급 토너먼트가 벌어진다. 6월17일에는 대망의 100만 달러 토너먼트 16강 본선이 시작된다. 이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대회는 3월11일의 여성부 매치다.

ROAD FC XX는 여성파이터 육성과 종합격투기 대중화, 여성부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만

들어진 여성 파이터들만의 리그다. ROAD FC 소속 우리나라 최고의 여성 파이터들이 총출동해 기량을 겨루고 경험을 쌓는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ROAD FC 037 XX로 이름 붙여진 이번 대회는 태권도, 무에타이, 우슈, 복싱 등 각종 챔피언 출신 여성 파이터들의 출전이

확정됐다.

●플라이급 강진희 VS 라이카 에미코

‘여자 권아술’ 강진희(19, 탑강남/압구정점)와 ‘복싱 챔피언’ 라이카 에미코(43, TRIBE TOKYO MMA)가 2차전을 갖는다. 강진희는 2016년 11월 일본 단체 덱 주얼스(DEEP JEWELS)를 통해 프로무대에 데뷔했다. 복싱 세계 챔피언 출신의 에미코를 상대로 화려한 난타전을 벌여 호평을 받았다. 비록 판정패로 끝났지만 신인답지 않은 존재감을 드러냈다.

WBA 슈퍼페더급 챔피언 출신 에미코는 종합격투기로 전향한 이후 딥, 판크라스, PXC를 오가며 다양하게 활동했다. 세계정상급 타격실력을 바탕으로 그라운드 기술을 섭렵해 완성형 파이터로 거듭났다는 평가다.

●-46.5kg 계약체중 이예지 VS 시나시 사토코

‘여고생 파이터’ 이예지(18, TEAM J)가 데뷔전 상대였던 ‘일본 격투여왕’ 시나시 사토코(40, INDEPENDENT)와 리벤지 매치를 갖는다. 2015년 7월25일 열린 ROAD FC 024 IN JAPAN을 통해 프로에 데뷔했던 이예지는 ‘베테랑’ 사토코와 대결했다. 결과는 예상대로 패배

였지만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과시해 단숨에 유망주로 떠올랐다. 최근 빠른 성장속도를 과시하고 있다. 시모마키세 나츠키, 하나 데이트를 꺾고 2연승의 상승세다.

사토코는 35승 2무 2패의 화려한 전적을 보유한 베테랑이다. 147cm의 작은 신장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유도를 수련해 그라운드 기술이 뛰어나다. 최근 7경기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다.

●아틀급 임소희 VS 하나 데이트

‘우슈 공주’ 임소희는(20, 남원정무문) 우슈 청소년 국가대표로 3년간 활약하며 제7~8회 우슈 청소년 아시아선수권대회와 제5회 세계청소년 우슈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이후 임식 격투기 무대에 진출해 14승 5패를 기록했다. 2016년 4월 ROAD FC 030을 통해 종합격투기에 데뷔했다. 최근 거듭되는 훈련을 통해 데뷔전 패배의 설욕을 다짐하고 있다.

하나 데이트는(20, TEAM DATE) 작년 중국 창사에서 개최된 ROAD FC 032를 통해 데뷔했다. 당시 이예지와와의 경기에서 판정패했다. 소극적인 경기 운영을 펼쳤는데 이후 덱 주얼스 14에서 승리를 거두며 2연승에 도전한다.

김종권 기자 marco@donga.com